

로봇 (Overweight)

변곡점에 서있는 협동 로봇 (Feat. 두산로보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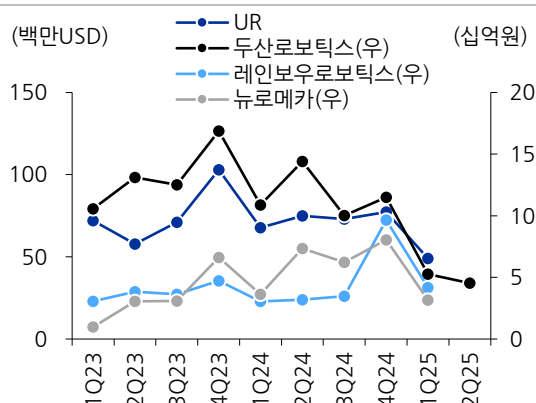
로봇 산업 포인트

협동 로봇 시장에 변곡점에 서 있음. 코로나 이후 높은 성장성을 기록해왔지만, 최근 빠르게 성장이 정체되는 중. 활로를 찾기 위해 협동 로봇 업체들은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 국내 대표 협동 로봇 기업인 두산로보틱스도 마찬가지.

로봇/방산/조선/항공 양승윤_02)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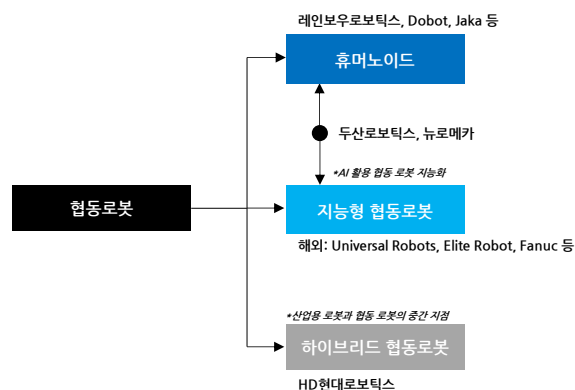
- 두산로보틱스가 2Q25 실적을 발표. 매출액 45억원(-69%yoy, -14%qoq), 영업손실 157억원(적자확대yoy, 적자확대qoq)를 기록. 미국 관세 이슈 등 영향으로 전방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협동 로봇 시장은 2023년부터 역성장에 진입해 성장이 정체되고 있음. 코로나 이후 자동화 수요 확대 흐름 속, 안정성/보급 확장성을 강점으로 머신텐딩 및 물류 팔레타이징/피스피킹을 중심으로 한 수요 개척을 추진하면서 주목 받았던 로봇 분야. 그러나, 산업용 로봇 대비 속도 느리고(안전성 확보 위함), 가반하중이 낮아 활용성 측면에서 한계 존재했고, 산업용 로봇처럼 대량 양산 라인에 투입되기 보다는 셀단위 생산에 소규모로 투입되며 규모의 경제가 형성되지 못했고 빠르게 물량이 늘어나지 못했음. 무엇보다도 사용자 편의성 향상으로 SI 비용 절감 등 도입에 대한 부담 감소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엔드 유저가 플러그 앤 플레이로 활용하기에 난이도가 있는 분야인 점은 불변.
- 두산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Universal Robots 등 글로벌 탑티어 플레이어들도 매출 감소 추세. Universal Robots은 최근 구조조정 단행하면서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동 로봇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아 나서기 시작. 당사가 파악하는 길은 크게 세가지. (1) 양팔형 휴머노이드 시장으로의 진출(레인보우로보틱스, Dobot, Jaka 등), (2) AI 기술 접목하여 협동 로봇 자체를 지능화/솔루션화 추진(Universal Robots, Elite Robot, Fanuc, 두산로보틱스, 뉴로메카 등), (3) 산업용 로봇처럼 속도와 힘을 키우는 하이브리드 협동 로봇 개발(HD현대로보틱스, ABB 등). 쉽게 정리하면, 협동 로봇의 부족한 HW 능력을 키우거나(양팔 로봇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작업성 향상, 가반하중 및 속도 개선 등), AI 기술 접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 협동 로봇 시장의 단기 부진은 불가피하다는 판단. 부족한 부분 보완하여 경쟁력 확보한다면 다시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 것.
- 두산로보틱스도 단기 실적에 연연하기보다는 금번 ONExia 인수(미국 협동로봇 솔루션 업체)와 연구 조직 강화, 프랙티컬 휴머노이드 개발 등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 중. 시장에서 기대했던 성장 속도 및 수익화 시점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연구개발 및 투자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 여부 지속 관찰 필요.

UR과 한국 협동로봇 매출액 추이



자료: 유진투자증권

여러 갈래로 퍼지는 협동 로봇 시장



자료: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8%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2%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2025.06.30 기준)